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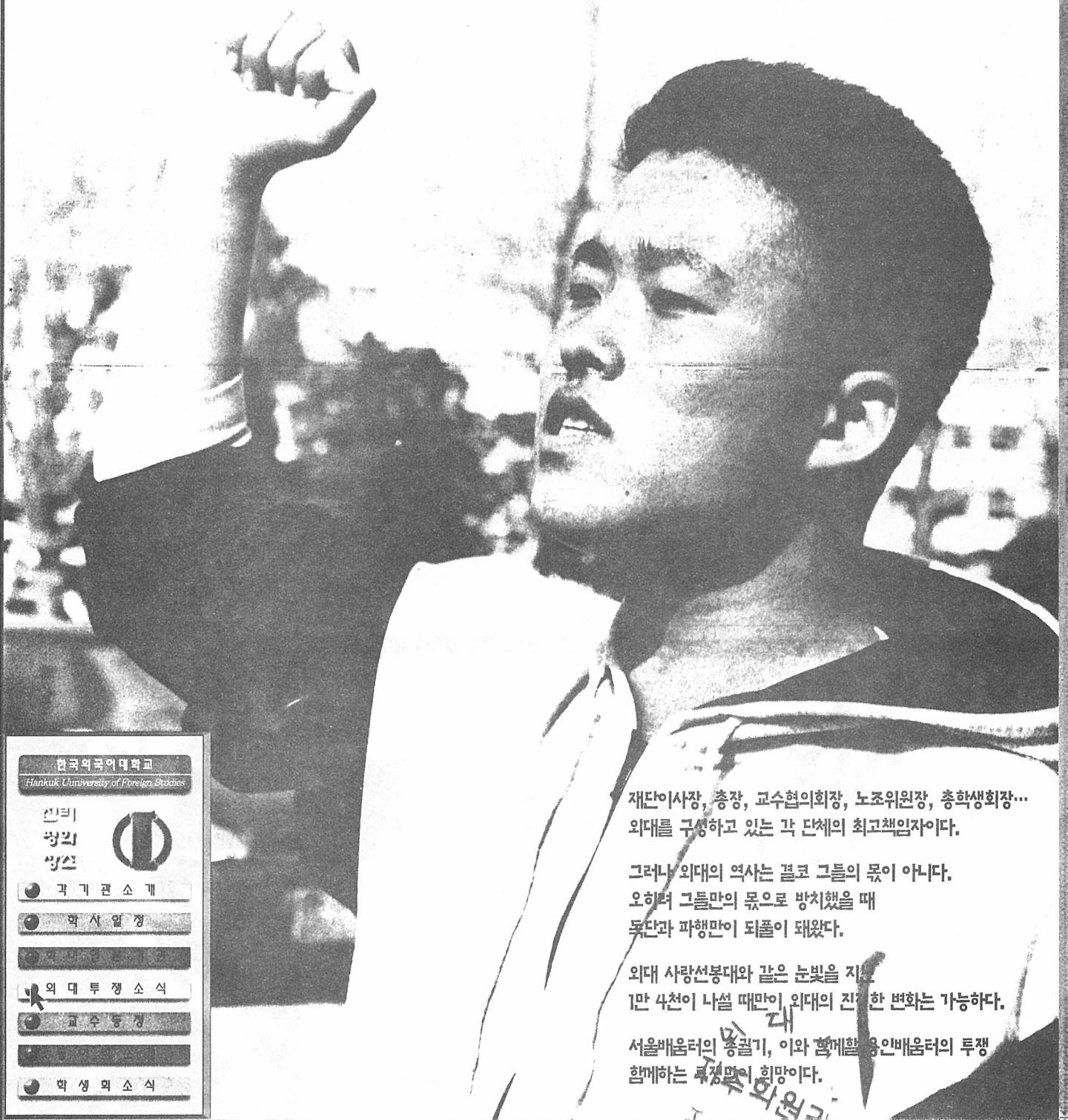
진리 평화창조

1998년 4월 13일 (월) 제711호 참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일 편집인 김경희 주간 변태협 편집장 김경희 인쇄인 홍문주 외대신문사 081-4151, 082-7120(0)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081-4152, 4468 FAX 081-4183 (증인) 0335-30-4112 서울시 종로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용산리 산 80

Location <http://www.hufs.ac.kr>

What new? What Cool?

사진모델 : 김현식(법·법학 2)
사진 : 임승희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글로벌
국제
언어
학부
각 기관 소개
- 학사 일정
- 교수 등록
- 외대 투쟁 소식
- 교수 등정
- 학생 회 소식

재단이사장, 총장, 교수협의회장, 노조위원장, 총학생회장...
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체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나 외대의 역사는 결코 그들의 몫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몫으로 방치했을 때
독단과 파행만이 되풀이 되었다.

외대 사랑선봉대와 같은 눈빛을 지닌
1만 4천이 나설 때만이 외대의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
서울배움터의 풍물기, 이와 함께할 용인배움터의 투쟁
함께하는 투쟁만이 희망이다.

재단사태 일지

97. 12 총장선거 과정에 재단의 모이사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
는 소문이 있음을

98. 1. 5 교육부 신설 배경에서 이어진 박사장을 비상근
이사로 영한다 내용의 담화발표

98. 1. 6 교육 일부 평의원들이 전체교수의 이름으로 이사장의 선
언에 대한 회부회장포럼

98. 1. 15 이사장, 직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발송

98. 1. 29 박사장, 직원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의 편지발송

98. 2. 6 이사장증과 총장증문제를 두고 갈등벌이던 재단이사
회 결론없이 끝난 경위를 시사해온 표명

98. 2. 13 긴급교수회에서 이사장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외부
회계법인의 특별감사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박준중의 비리
폭로

98. 2. 15 서울총회, 전체교수회의 때 얘기된 박준중비리 학생들에게
공개

98. 2. 17 서울총회와 인방면 전 총장 면담. 이사장이 교육부에 박사
시에 대한 이사장이소신하고 신청한 사실을 확인. 박사장 교수
들에게 자신의 입장이 담긴 편지발송

98. 2. 20 교수회입회사업회에서 1월 6일의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구도로 시사과별 발표 1교월 회부회장인은 사퇴하고 전
체교수들이 1월 10일 발표에 대한 책임을 회교협회장단과
평의원회선임집회로

98. 2. 27 서울총회, 재단이사진에 대한 문제제기. 신우중호 이사
시퇴

98. 3. 1 총장직무대행에 조규철교수임명, 각 처장·부장 새로 일임

98. 3. 2 교지, '교육개혁 최우수대학' 간판을 '재단비리 최우수대
학'으로 비판 표지사진 게재한 새내기회 배포금지 조치

98. 3. 3 농민이사·마부처리·총장선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직
원노조 성명서 발표

98. 3. 9 서울총회, 이사장 면담. 교무부원회 박이사로 회부입회장
으로, 서율·외모전과 박준중 퇴진을 위한 외인 회부회장지
대회 100여명 참가에 진행. 디렉슨준사업회 디자인
이전 디자인비용회원회설치 디자인배우터 특화발전 등
구, 카이iling성사작

98. 3. 17 서울 단과대 학생회장 등 국가 교육위원회 항의방문
98. 3. 18 서울 비상총회전체총회 100여명 참가에서 진행. 교육부
한국화원회, 박이사입장 항의방문.
'외대증총과 재단개혁을 위한 공개질의의사' 재단에 전달

98. 3. 20 서울, 공개질의의서에 대한 대답변지자 '외대증총과 재단개혁
을 위한 재단서' 전달

98. 3. 22 용인총회에서 재단문제에 대한 입장 밝힘. 박준중퇴진과
부령한 재단문제 등

98. 3. 23 전체교수회의 박퇴진 대세였으나 일부 교수 크게 반발

98. 3. 27 서울 총회의 예산제에 대한 재단 연락 없자 능성 들어감

98. 3. 28 전날 협상결렬에 대한 항의로 재단이무게 짐가.

98. 3. 30 이사장·조규철 총장직무대행 '외대발전과 재단개혁을 우
한 선언'에 서명

98. 4. 1 이사장 박준중이사를 상임이사에 재임명한다는 발표.

98. 4. 3 교무부원회 이사장 별표에 대한 반대입장.
이사장 감사가 직원인사단장·총장·이사를 파기

98. 4. 6 직원노조 '박준중임당 추방' 입장 발표.
총장 선언문에 이행 약속.
한겨레신문에 부정·평양화 비리 사실 보도.
각 언론사 기자회견.

98. 4. 7 박이사에게 대한 고발장 청서지침 등부지침에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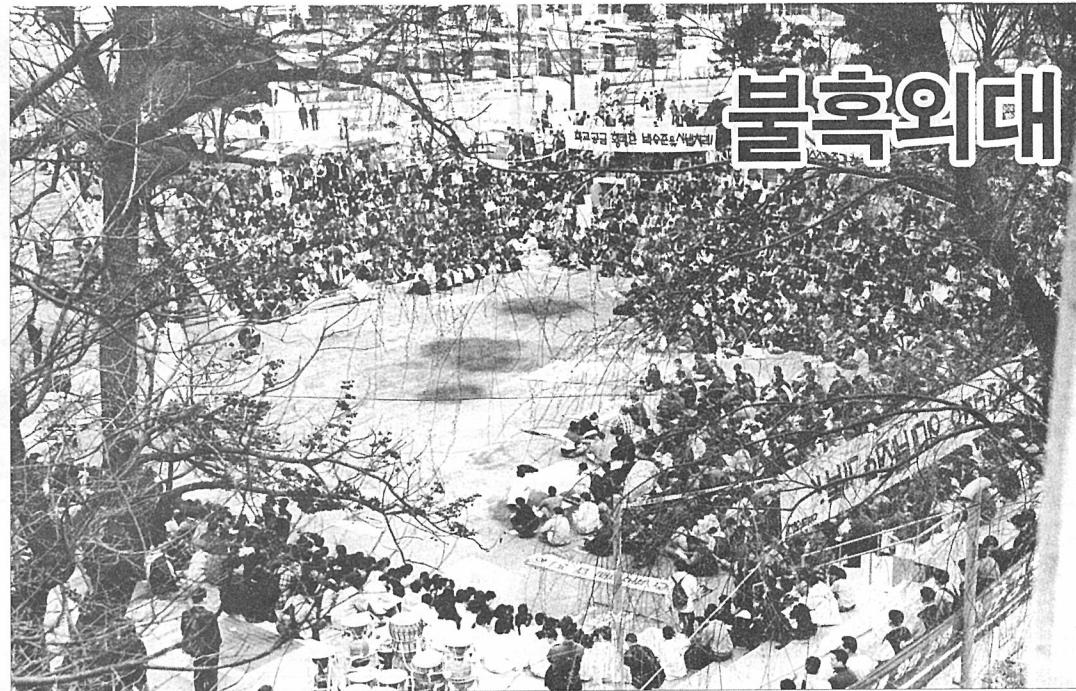
98. 4. 8 용인 총학 출판부·마부처리와 진실규명 등 입장 표명

98. 4. 9 교육부 특별 감사 시작 '재단이사회 완전퇴진과 공장하고
청지한 특별감사를 위한 2차 비상총회생성회' 열림

98. 4. 10 재단이사회 평택호수원회에서 재단별수원회 총장에 선
임. 서재평교수 수락 의사. 총장, 교무부원회 반대.

98. 4. 12 서울 확대교원회원회에서 통합총회 민장일자로 통과.

98. 4. 13 전체하야회와 평의회에서 개최



학생들이 느끼는 재단투쟁, 어디에 와 있나

사용 사회과학관 5층에서 내려다 본 외대의 복도
경기 공공미술에 대한 서울을 배울수 있는 공간으로
불만을 터지며 함께 활동하는 회사였다. 블로그로 치장
한 교정을 거는 학생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도록 날짜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제작단 대신교수와 함께 전시회를 공통하고 청자한 특별감사
시행

어디선가 한 무리의 학생이 구호를 외치며 뛰어
나온다거나 “외대교립관선봉대”라고 써온 회색티셔츠를
를 걸친 20여명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이제 그들이
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진 않아도 따뜻한 눈길로
그들의 말에 기ву기울이는 분위기였다.

지금까지는 매일, 지금부터는 한사랑팀 이틀에 한
번쯤으로 활동장을 찾는 그들이 현재의 학생회
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땠을까? 잊으려고 노력
와선대 한 대원은 “제단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비해 투쟁의 흐름을 활활하지 않은 것은 일상으로
이 게임은 끝”이라며 자신에게 먼저 채찍질을 기록
했다.

이사장의 3.30연선 이후 주축했던 집회인원도
날이 빠졌다. 박승준이기에 대한 분노의 역할이 커
어서사일끼? (박승준퇴진에 대한 얘기)는 89년부터 종
식으로 제작됐다. 제작 9일째(19일) 비빔밥상생종식으로
에는 취업준비생, 그야말로 ‘누군가를 없는’ 고생하는 학생들이

예비역들이 힘든 국장을 체워주고, 그나마 아직은 난간에 걸터앉은 수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관심도 만족하지 못하는 더 많은 대중을 훑어하기 위한 고민은 집회의 방법에서도 엿보였다. 상대방의 학습법이나 '오늘부터 우리는'과 같은 공연 등을 학생들의 시선과 함께 충분하고 그들을 '우리'로 보고 내내면서 글과 카지 열심히 투쟁하세요"는 말도 있지 않았다. 약간은 다른 모색이지만 뭔가 자기풀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한 한편이거나 끝난 학생회와 학생들의 거리가 존재했다. 도서관에서 만난 92학번 예비역은 "모교에서 제대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믿을작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혼자서만 앞서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지적하고 또 "요즘 92학번이 많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너무 92년만 따리기보다 보면 92년의 실패를 따리기보다는 '잘 했던 사람과 밤을 애수하는' 전ソ리'로 풀고 싶었다. 이 시장과 '성신' 이후 이전전쟁 개편으로 투쟁방법을 수정한 학생회에게는 학생들과 처음부터 다시 학의해 나가라는 따뜻한 고언인 것이다.

특별감사에 거는 학생들의 기대는 남다르듯 하다. 특히 강이 진행되는 본관 108호를 기점으로 디디다디 바이어있는 대학본관은 그 것을 보여준다. 외인인의

지는 박준준의 돈보다 강하다' '감사 제대로 하면 엄청 감사해지요'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웬지 의사심스럽다. 이번에는 돈과 읊모로 외래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을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나리를 이끌어 갈 우리가 돈과 권리에 찌들어 또 후생복지관에 붙어있는 제단문제관련 대자보를 열심히 읽고 있던 오수진(서학·영어 1학년)은 "왕은 한층행복에 너무 물들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후생운동에 대해 점은 고맙지만요. 학내문제에 기장 먼저 신경써야 되지 않나요?"

나를 믿는 사람은 '拭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은 특강
기간동안 풍물집을 중심으로서 특강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무정방은 승진하는
생각에서다. 풍물집까지 재단이사회에서 일직선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에서 대중에게 풍물집이란 개인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탈출구임을 아는 학생은 많다. 그들을 중간고사부
로 이끌어내는 것은 함께가는 학생회의 몫일뿐....
이외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을 더 만족시킬 위해 명수당에서 어문관으로
몰리고자 마침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것으로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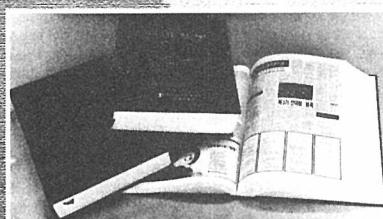
용인 따기로 햇살이 눈을 부시게 하는 날 기자는 재단법인과 관련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널디넓은 육상은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총학생회장이 '한국대학육상학회(한국한총련)' 의장 후보로는 한 여학생에게 말을 건넸다.
입학 입학 새내기라고 소개하는 최혜정(서화
사법원서 1)양은 "부대부의 학우들이 재단법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선전작업이

나섰다는 플랜카드, 재단문제에 대한 대자보 등 여
러 선전물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잘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학우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선전작업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바
랬다.

학생식당은 봄비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하는 학생들로 기득한 학생식당에서
식권을 시작해 거리다 있고 싶어지기 이효원(부
리·화학과 1)군을 만났다. 그는 현 재단문제에 대
해 “우리 용산 학교에서는 재단식당을 거의 인하는
것 같아요”라며 재단문제와 관련해서 알았던 것은 해보와
TV를 통해서였는데 별로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않
구요?”라며 “금방 잘 해결되겠지요” 뭐”하고 관심없
는 듯 얘기했다.

박윤정 · 명재권기자

문익환, 임수경, 홍세화에서 문성근, 서태지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3년 불혹의 나이를 넘긴 외대학보의
10년 결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0년 외대학보의
사전, 사고, 감동, 노력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학자리에서 만나 수 있습니다.

민족사주인은

구분 요일	조식	중식	석식
월(13일)	참기름찌개 (~₩1,400)	신채비빔밥 (~₩1,400)	불고기된장국 (~₩1,400)
화(14일)	볶아국밥 (~₩1,000)	삼선짜장밥 (~₩1,300)	오징어버섯찌개 (~₩1,400)
수(15일)	콩나물국물국 (~₩1,000)	훠궈스테 (~₩1,600)	근대된장국 (~₩1,300)
목(16일)	사과우거지국밥 (~₩1,400)	훠궈수수볶음밥 (~₩1,300)	신차해장국 (~₩1,500)
금(17일)	손두부찌개 (~₩1,0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우부무우국 (~₩1,400)

본 신자는 사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요일	중식	석식	별식
월(13일)	*미야국 #두부만두국	*김치콩나물국 #수제비국백반	*하이아리스 #모듬초밥
화(14일)	*쇠고기무쪽 #깻잎나물국	*김자수새비국 #원장찌개	*모듬키реб.Parameters #모듬초밥
수(15일)	*사금치콩나물국 #설과제국	*북어해국국 #한지김치찌개	*오이밀밥 #유기雄厚
목(15일)	*우대국 #우거지진친국	*김치이배우국 #조기배운탕	*참시와달걀 #모듬초밥
금(16일)	*무채이북국 #깻망국	*우거지한강국 #닭배속	*모듬키реб.Parameters #모듬초밥

거듭나기 진통

교부 특감은 만능인가

예를 들어 보자. 96년 대성여대에서는 이사장 직무행으로 인정받지 않은자(박원영)가 이사회를 소집했다. 당시 2년간 8회에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으나 법은 겨우 경고처치였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96년 7월에 감사가 진행된 신용증권대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대금 유용 등에서 285억5천만원, 각종 회계수입금유용에서 657억 8천만원, CD매출자금유용에서 605억, 이자 미세입에서 845억5천만원을 유용, 총 1466억 8천만원의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은 물론 인사조치도 전혀 없었고 징계만 6명에게 주었다. 짐계리는 것도 증징계가 겨우 견해거나 깊어 수준이다.

어떤 이는 이같은 사실을 사립재단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교육부의 한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립학교법의 문제라고도 한다. 또, 교육부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도 철저하고 감사는 되도록 피한다는 얘기도 있다. 즉 처음에는 특감을 보며 교육부당국의 계획의지를 높이 시각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 여론은 교육부의 관리실패를 비난할 것이다기 때문에 감사는 해سا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투쟁과 교수·직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당시는 쪽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격의 포화를 놓주고 싶은 법, 재단측의 로비력이나 금력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첫째, 특히나 예산의 일정을 맞추어온 사실이다. 물론 특별감사 자체는 학생들의 투쟁과 교수·직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당시는 쪽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격의 포화를 놓주고 싶은 법, 재단측의 로비력이나 금력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특별감사를 받은 교육부에 제제한 박이수에게 대한 일정을 맞추어온 사실이다. 물론 특별감사 자체는 학생들의 투쟁과 교수·직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당시는 쪽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격의 포화를 놓주고 싶은 법, 재단측의 로비력이나 금력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96년에는 용인대·연세대·경성대·목원대·4대학대·97년에는 한국환경공대·호서대·동아대 3대학대이 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7대학대 모두 감사를 통해 해임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윤정 기자



외대사랑선봉대의 일기

98년 4월 2일 목요일

박승준을 세신한 우리는 이사장회의의 과문서로 인해 외선대에 미워하고 구하였다. 3.30선언의 임크가 새 미워기도전에 이런이야기를 생각나니 모두 믿지 않는 시간에 놀리고 허탈해 한다. 우리는 일정관제로 내일부터 결합한다고 했는데 97학년 후반 3학기 굳이 결합한 본관을 사수하고 있다. 가령차게 진행된 외대발전준행은 물론이고 자주화된 학원이 건설해야겠다.

자랑스런 후배들의 모습에 우리는 아직 큰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98년 4월 5일 일요일

외선대에 결합한지도 사흘째다. 오후에 일꾼들의 대회를 마치고 박승준 수하의 직원들과 짜

움이 있었다. 박승준이 멋대로 낸 직원인사발령을 품에 춤부리를 접기하고 모종의 음악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냈다. 언제까지 저물고 유토플을 벌여야 하는지 안타까운 표정이다. 그들도 한 집안의 일인가 자신들이 벌여 살기를 원할텐데.

앞을 잇는 박승준이 있는 한 언제까지 벌어질 일이나 벌어져 왔다. 그리고 권력에 빌붙여 살 인간들은 언제든지 생겨난 것이다. 이런 인타까운 현실을 겪어내기 위해 하루빨리 박승준을 물어버리고 자주화된 학원이 건설해야겠다.

98년 4월 7일 화요일

기심에서 아침 선정장을 진행하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학내선진전하고 다시 밤에는 활약장을 진행하며 학내선진장을 선다. 편히 쉴 틈이 없다. 오늘 아침 선진장을 하다가 어제 중예가 왔다.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해 거울을 보기 같다. 중대장을 맡고 있는 후배가 오

늘도 집에 둘들이 긴다는 전화를 했다가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난 모양이다. 얼굴이 인풀어 보인다. 무척 겁에 들어가고 싶을텐데. 내가 새 내내 때 같이 외대발전을 외쳤던 동기들은 고시 준비와 취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군 대도 갖다왔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우리가는 같이 물려온 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해야되는 일은 내가 하겠다는 후배의 말이 생각난다.

98년 4월 9일 목요일

비상학생총회에서 외선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비상체계로 운영이 꽤였는데 많은 어려움과 학계가 있었다. 이제 정식출범을 하는 외선대가 너무 자랑스럽다. 외선대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는 한 우리가 끝내 승리하리라 는 확신이 선다.

정기회(법·법학 3)

외대의 안타까운 현실
벗어나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재단개혁해야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 차이 좁힐 수



복수전공 이수신청

1998학년도 제 1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수업일수 2/4선 이전 소정기간내('98년 4월 24(금)까지)

2. 신청장소 : 해당대학 교학과

3. 신청자격

가. 1학기(초기증명 6학기)까지 제1전공 평점평균이 2.50이상인 자.
나. 제1전공을 8학기(초기증명 7학기)내내 이수할 수 있는 자.
다. 복수전공 최망학과의 부전공 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제출서류 :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학과 비치),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통.

5. 복수전공 이수 허가표 : '98년 5월 중 단과대학별 공고

6. 기타사항 :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98년 8월 출입증명자는 정부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되, 연석사항은 복수전공 최망학과, 원제의 학번으로 기재할 것.)

* 복수전공 취소기간은 3/4선 이전 소정기간내에 공고할 예정이오니 척오하기를 바랍니다.

1998. 4.

교무처장

항공사 승무원 취업설명회 개최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국내 및 국외항공사 승무원에 관한 내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1998. 4. 16(목) 14:00

2. 장소 : 대학원 610호

3. 참석대상 : 승무원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

4. 설명회 내용 : 승무원 채용시기, 채용방법, 승무원 type, 승무원 생활 등 설명.

5. 주관 : 학생취업정보센터

6. 주최 : Air crew Veterans Association

1998. 4.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98 군장학생 모집(학군, 학사사관)

1. 모집인원 : 1학년(100명), 2학년(100명), 3학년(1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1학년(76. 1. 1~'82. 1. 1 출생자)
3년제 2학년(75. 1. 1~'81. 1. 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8. 3. 16 ~ 4. 30(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학년(제출서류) 2학년(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면서 각 1부
· 대학수료증(성적증명서 부)
· 복무연장 또는 장기복무지침서 1부
· 전문서(4×6cm) 3장

4. 선발절차

·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1998. 8. 10

6. 특전

·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서 '1/2'면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수료증(성적증명서 부)

· 회장증 및 전장 고려 별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도록 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 및 차우)

7. 문의전화 : 061-4411. 4412

1998. 4.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99 학군사관후보생(R.O.T.C)모집

1. 모집인원 : 100명

2. 지원자격

· 98년도 현재 대학2학년 학생
· 75. 1. 1~81. 3. 1 출생자(20세~27세 이하)
· 장교임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8. 3. 30 ~ 5. 2(학군단 행정반)

· 구비서류

1학년(제출서류) 2학년(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대학수료증 1부
· 대학수료증(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료증(성적증명서 1부)
· 전장증명서(4×6cm) 1부
· 고교(국제) 졸업증명서 1부
· 학생부(5주동안) 2부
· 전장증명서(4×6cm) 2부

4. 선발

· 1차 : 입학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직성/면접평가
· 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1998. 11. 20

6. 특전

· 회장 및 전장 고려 별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도록 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 및 차우)

7. 문의전화 : 961-4411. 4412

1998. 4.

제119 학생군사교육단장

(이) 제 더이상 안전한 직업은 없다 6-대안②

자립조건없는 무한경쟁편입, 무한퇴락 가속화

재벌 독점·농촌파탄·수출지상주의… 민족자립경제로 타개해야

종속적 경제구조와 경제위기

현재 심각한 실업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경제위기는 비단 외화부유국과 비단으로만 있는 한 외환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현 시기 내부적인 경제불황과 함께 해방 이후 50여 년 동안 풍물이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된 국세수지 적자확대와 기관수익성 약화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 구조적 모순은 해방 이후 지금금 강시간 노동강요, 노동자 입장을 비탕으로 하는 경부주도, 세법증설, 수출지향적 압축성장체제로 표현되는데, 이는 친자기 국제자본(특히 미국)의 논리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그리고 재벌 개혁과 작은 정부 추구 등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만을 추구하는 김대중정권의 IMF경쟁위기 처방은 경제구조의 종속성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부주도를 없을 것이다. 이 곳에서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마련으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 할 것이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IMF시대, 고용현실과 고용구조변화
2. 고용위기의 원인
 - ①세계자본의 신자유주의
 - 3. 고용위기의 원인 ②한국자본주의와 IMF
 - 4. 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
 - 5. 대안 ①산별노조, 일자리나누기
 - 6. 대안 ②자립적 경제의 토대구축

① 대적 인수합병, 우리 경제 대안인가



우리 기업 없는 우리나라

외채 상환위해 외국인에 기업 매각 대량 실업사태·경제주권 상실 불러

한국경제의 위기를 구한다는 IMF... 그러나 IMF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나라들 중 가장 모범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강드류 IMF 총재의 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보면 허울 좋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2~3%하는 무너진 이어 미국이나 성장율로 침울하고 있다. 하루에 10만 풀로 늘어나는 실업자와 계속되는 기업 부도사태에도 물에 수출증을 500억 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며, 한국의 경제는 2~3%라면 회복할 수 있으며 예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김희 한국의 경제는 끝장이 났다고 단언하고 싶다.

2·3년내 경제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한국의 경제구조로는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다. 외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이자만 150억 달러 이상이며 한국의 최대무역수출과 맞는 액수다).

두번째는 등남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출시장이 축소되었고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대외수출증가로 원자재로 이루어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으로 수출시장의 축소는 자연스럽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세번째는 일본경제의 위기이다. 일본경제는 이미 1990년 이후 7년간 경기침체로 거듭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있어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로인하여 엔화의 폭락으로 이어져 한국은 외화수입의 압박과 동시에 한국은 주력수입이 일본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급속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차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등남아시아와 한국 등 주 채무국에 외화상환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증강기외채는 단기외채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네번째는 산업화를 증가함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임금삭감과 물가폭등으로 서민의 생활은 파탄나가 되고 세금을 신생하는 내수시장은 경기 하락 위험되어 일자리를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섯번째는 외국의 적대적인 합병이 본격화되고 주식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생산성을 높여도 부가 국내에 축적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탈출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 안은 적대적 인수합병?

한국경제는 이론과 판례는 물론 문제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넘어서 관계하고 한국경제의 현실에 맞게 전시화적인 민주화와 개혁의 요구를 수출증을 추진하여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아니면 외제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노동자에게 상당수를 고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김희 한국의 경제는 끝장이 났다고 단언하고 싶다.

이번 유럽, 아시아처럼 정상화되면서 잘 보여 주듯이 한국의 외화수입은 외국의 투자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특히 4월에 IMF측과 추가협상을 하면서 단기외채의 일부를 증경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일부의 경기불황과 그 "남한" 입장과 등남아시아 경제의 징기적인 불황으로 외채상환에 더욱 어려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작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재벌이 전체외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에서 외채는 외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대량실업과 자신의 기업을 팔아 넘기지 않으면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작될 것이다.

즉 IMF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돈을 쟁기기 위해서는 경제상장을 하향 조정과 긴축재정을 통하여 확보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브루트를 고스란히 차지함으로 양후 금융을 비롯하여 전신업계에 있어서 급속하게 종속관계로 유지 경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을 예측과 긴축재정은 자연스럽게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평균경제상장률이 7.8%로 볼 때 경제상장을 1%가 떨어지면 평균 30만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이미 1984년 경제상장을 0.2%가 기록 할 것이 예상되며 2001년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는 긴축재정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내수시장의 침체로 일자리는 더욱 축소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된다.

특히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은 외국기업주

가 한국의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감원할 것

이고 이에 따른 중소업체의 부도로 대량실업은 국가경제의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실업자는 최소 300만명으로 추산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은 국가 위기 를 불러온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벌려준 돈은 확실히하게 행기면서 한편으로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금융과 산업을 험값으로 인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IMF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돈을 쟁기기 위해서는 경제상장을 하향 조정과 긴축재정을 통하여 확보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브루트를 고스란히 차지함으로 양후 금융을 비롯하여 전신업계에 있어서 급속하게 종속관계로 유지 경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을 예측과 긴축재정은 자연스럽게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평균경제상장률이 7.8%로 볼 때 경제상장을 1%가 떨어지면 평균 30만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이미 1984년 경제상장을 0.2%가 기록 할 것이 예상되며 2001년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는 긴축재정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내수시장의 침체로 일자리는 더욱 축소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된다.

특히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은 외국기업주

가 한국의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착취를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감원할 것

이고 이에 따른 중소업체의 부도로 대량실업은 국가경제의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실업자는 최소 300만명으로 추산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사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21,668,000명, 남자가 12,845,000명, 여자가 9,023,000명이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야 할 것은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남자의 경제활동 비중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형태와 다른 경우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만큼 기업인 의존률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사회복지체계도 대단히 뛰어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은 실업은 곧 가정파괴와 시설화를 요로 이어갈 소지가 외국보다 높은데 문맥이 있다.

먼저 한국경제의 주체라고 가장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경숙인을 보면 대기업과 민족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미 가장 많은 부도들을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에 물린 기업은 상당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고폐투자는 재벌을 중심으로 수 차례 노동자들의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두번째는 경제활동의 평균수입이다. 특히 IMF에서 구조조정의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다.

기타 다른 산업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숙인을 보면 연희와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심하게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울이고 있다.

나마도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 내수시장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기타 다른 산업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숙인을 보면 연희와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심하게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울이고 있다.

나마도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역대본보 기사 속에서 본 외대 고질병, 과연 치유 됐을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그냥 참고 산다”

창강 49년을 맞아 그동안 본보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다뤘다. 서울 배움터 학생회관과 노천지하, 윤인 배움터 기숙사와 교통문제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조명해 보자 한다.

1. 학생회관(서울)

208호 78년 10월 21일자 64년 9월 현재의 학생회관이 신축되었으나 도서관으로 활용되다가 78년 10월 현재의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어 도서관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을 학생회관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49호 89년 9월 1일자 8월 28일 회의실로 4층의 3층 20평 전소 화재에 대해 본보 칼럼 '크로나운'에서는 노숙자들이 들어선 건물, 침는 나무로 천장, 작동 안되는 경보기·소화기 등을 폭로, 외대화보 선정 87년 10대 뉴스로 선정되는 불법에까지, 학교측의 방화관 리 부실에 대한 자각 촉구.

63호 94년 7월 29일자 11월 23일 2면째 회재가 발생했다. 이번 회재는 학생회관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더욱 큰 불로 번져 인해라는 오명을 면치 못했다. 불이 난 학관은 회재감지기가 전원 작동되지 않았고 각 동 이리 벽이 불연재가 아닌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피해를 확산시킨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난로사용과 회재원인이라 판단해 충장명으로 오후 10시이후에 학생들의 학관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대내 본보는 '기자와 눈' 칼럼을 통해 실태를 비판한다.

60호 98년 3월 18일자 학생회관 비좁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평균 낮았던 공간이 100㎡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 각 과의 회의, 품목페, 노래페등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수용해야 한다는 과정의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통로나 빌딩에 있는 전경에는 동네인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결론은 당시 건설중인 교수연구원에 원공원 위치한 우체국, 학생회관, 출판부등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주장이다.

700호 97년 11월 30일자 지금까지 지적된 학생회관의 서글은 현실로 보여지는 학생회관 신축에 대한 응답임을 주제하였다. 현대 학생회관은 이해하고 있는 등, 아파, 고향생애 학생회기구, 학교구의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가장 철학적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조사·설계했다. 신상속의 건물이 아닌 예산만 확보되면 현실적으로 경설 가능하고 실용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건물이다.

현재 “근래 기기장과 비해 달라진 것이 없네요.” 김 도현(설천한국·중국어 3)군이 말하는 학생회관의 실태다. 그는 “한기·방음설계가 크고 통로리방이 너무 작아 모임은 다른 곳에서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경문제로는 아파, 고향생애 학생회기구의 청사와 불만을 나타낸다. “내기들이 이곳에 한 번 오기도는 공기나쁘다고 다시 안온다”는 한 학생회 일꾼의 말은 문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어제 오늘의 기사와 아니고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다”는 신화준(상경·경영 3)군의 말은 견실 10년이

연합회장의 주장과 같다.

2. 노천극장(서울)

52호 89년 9월 5일자 노천극장은 1월 24일 착공해 그해 4월 원공된다. 당시 흥행생회는 24개 동아리가 이용할 잠소인 노천지하와 화장실과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하게 될 동네의 불편이 끊 것으로 판단하고 대학당국에 시급한 대책을 요구한다. 또 홍학생회는 노천극장을 부실공사로 판단해 적극 대응한다.

54호 89년 9월 26일자 원공률은 낮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노천지하방에 대한 문제제기다. 방 배경이 늦어졌다. 이로운 내부시내시설을 기울여 먼저 제기한다. 지하에는 환경과 방음, 환풍기시설의 문제를 비롯해 화장실은 깊이가 배수관보다 낮아 습기가 차게 된다. 기숙사의 난점으로 설계부터 제작된 점을 보도하고 있다. 또 공연분야가 배경될 방의 경우 방음장치가 미비한 점과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환풍기 설치가 인원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56호 90년 9월 4일자 노천지하생활의 어려움을 다룬다. 특히 원공 1년후 모습을 담았는데 당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내용이다. 일정으로 비단 날수 실태 조사를 해보니 13곳이 물이 섰다. 심지어 천정이 내려앉기 시작한 곳도 있었다. 빗물이 세 바람과 보관자료가 물에 젖어 부패되는 비탄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평소에 각방 모서리 부분과 바닥에 습기로 인해 물이 고여 악기반리동에 애를 먹는다. 가기마다 환경 및 방음시설문제, 물증장치가 있어서만 내부 습기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 대학당국과 건설업체인 산환경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65호 95년 10월 10일자 ‘흡신의 소리’로 지면화된다. 하루에 6시간강도 노천지하에서 생활한다는 법대생은 화장실과 전선을 청탁하면서 생활한다는 점에 대해 “통로나 빌딩에 있는 온갖화장실과 같은 화장실 설치라는 현실적인 주장을 펼친다.

67호 95년 12월 14일자 ‘한국 대체언론이다’ ‘한기 난방 시설 기본적 생활 요건 개선되어야’라는 제목으로 겨울을 나는 노천지하 학생들의 생활을 담았다.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미련없이 이곳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리라’는 흥분된 학생의 말에 학생들의 생활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겨울 지하의 혹독한 추위는 견디기보다 천히 고려하기 어렵다. 낮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천침수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학생회관 신축이라는 주장이 나타난다.

현재 “솔직히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다. 지난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화장실도 여전히 없고 또 공연분과 풍물과 많이 있는 상황에서 방음이 안되니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4년째 노천지하에서 생활해온 김동희(사회·정의 4)군의 말이다. 그는 “지하는 냉온이 다른 곳보다 스팀을 더 강하게 흘려줘야 한다. 하지만 노드로이스터를 데려가 인출어로에도 비밀제어 해제”며 대학당국의 청사와 불만을 나타낸다. “내기들이 이곳에 한 번 오기도는 공기나쁘다고 다시 안온다”는 한 학생회 일꾼의 말은 문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어제 오늘의 기사와 아니고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다”는 신화준(상경·경영 3)군의 말은 견실 10년이

지난 지금 10년전과 별다른 바 없는 학생들의 불만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준다.

3. 모현학사(용인)

51호 89년 5월 23일자 기숙사 전반의 시설 낙후가 카디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식권은 한달에 40개 구입이 강제되며 단일 구입한 식권은 반값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아울러 높은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이 낮아 사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남사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여사생들의 10시 ‘점호’에 대학 문제와 외박에 관한 복잡한 절차에 대처해 나간 사생회를 칭해준다. 비단 비단이 눈에 띈다.

53호 89년 11월 21일자 89년 9월 말에 발족한 기

숙사 식당개설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10월 식권에 4년째 재고식당과 포함되어 있는 사생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기숙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숙사 사생회와 함께 공정화를 개최했다.

55호 90년 10월 9일자 55호 기사에서 보도된

공정화 이후 식당족과 운영과 관계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결국 90년 ‘학기’에는 700원 의무식권제를 자율식권제로 비단에 그려졌다. 그러나 자율식권제로 인한 식사원 김소와 인연이, 물가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식비인상은 해야한다는 입장 즉 주장을 또다시 750원 40개 의무식권제로 확장이 있었다.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1백여명이 식권구입을 거부했다.

67호 96년 11월 4일자 67호(96년 10월 7일자)에

기숙사 ‘점호’ 문제(매일 밤 10시 30분에 방앞에 일렬로

서 인원집결을 받고 사생의 훈계를 듣는 강압적인 점호) 보도 후 여자김집에서도 오히려 강경화를 펼쳐졌다는 입장이다. 보다는 것에 대해 카디란 문제를 표방한 한 여사생의 글이 흡신의 소리에 실렸다. 그는 시감이 여사생들을 풀어놓기 위해 청탁하는 입주 즉 주장을 또다시 한동이 한동하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기숙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점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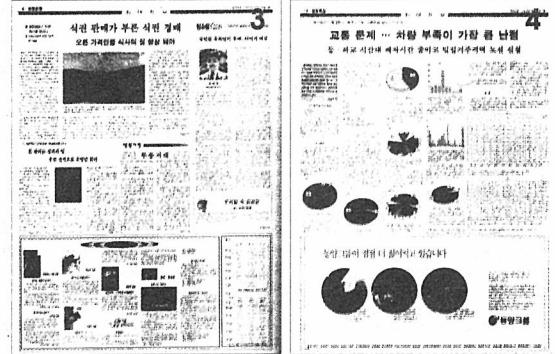
식권문제였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하던 점호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으로 횟수가 줄었고 시간도 11시로 30분

늦어졌다. 점호와 사생들을 줄이고 문문에 세워두지 않는 등 내용면에서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이유로는 여의도에 몰리지 않아 통증상없는 규율에 대한 사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요구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는 사실인데 이는 사람에게 잘못보이는 다음을 입에서 불어오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식권문제는 여전히 진작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 식권은 1650원 40개 의무식권제이며 그나마 다음달 10일까지 환불되었던 식권사용이 불만인 사용으로 규제되면서 남은 식권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 교통문제(용인)

34호 81년 9월 3일자 81년 8월 25일 용인배움터로 이전, 개강한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교통문제가 거론된다. 윤영고 3년생 정연아(여 4)군의 말이다. 그는 “지하는 냉온이 다른 곳보다 스팀을 더 강하게 흘려줘야 한다. 하지만 노드로이스터를 데려가 인출어로에도 비밀제어 해제”며 대학당국의 청사와 불만을 나타낸다. “내기들이 이곳에 한 번 오기도는 공기나쁘다고 다시 안온다”는 한 학생회 일꾼의 말은 문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어제 오늘의 기사와 아니고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다”는 신화준(상경·경영 3)군의 말은 견실 10년이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 본보에 3년 중 1번꼴로 용인배움터 교통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문제의식은 상당했으며, 그후 89년 교통문제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속속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11번 좌석버스와 1113번 직행화석을 줄이고 1117번 직행화석을 14번에서 27대로, 500명을 110명에서 100명으로 증차시킨 상황이다. 증차된 차의 경우는 배차시간이 1분으로 증차되었다. 특히 500명은 예전보다 기다리는 줄이 많이 줄었고 학생들도 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줄어든 1113번의 경우 회사측에서는 20~25명 배차하고 말하지 실제 학생들은 “30분에서 시간 이상까지 기다린 적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남과 분당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대두되는데, 시당·교포가 직행하는 917번 버스는 기차만 1000명에서 1200명으로 증차를 뿐 상황은 본보 687호에서 보도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500명 역시 버스 자체의 낙후성과 노선의 문제가 꼽힐 일이 제기되고 있다. “길질적으로 분단되어 타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는데 분단을 도는 시장이 너무 같다. 강남에서 타고 오는 학생들의 진찰질과 분당 학생들을 위한 분장을 대로 도는 버스노선이 있었으면 한다”는 배운준(공대·제어계측 30군)의 말이 현 노선의 문제를 잘 나타낸다.

교대역을 통과하는 500번의 경우도 학생이 몰리는 등 교시간에는 민차한 차에 승강하지 못해 30분 버스를 그냥 보내는 것이 기본으로 되 있다. 하교시간에는 500번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승차장을 끝에 메우고 있다. 1시간 간씩 기다리는 경우까지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11번 좌석버스와 1113번 직행화석을 줄이고 1117번 직행화석을 14번에서 27대로, 500명을 110명에서 100명으로 증차시킨 상황이다. 증차된 차의 경우는 배차시간이 1분으로 증차되었다. 특히 500명은 예전보다 기다리는 줄이 많이 줄었고 학생들도 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줄어든 1113번의 경우 회사측에서는 20~25명 배차하고 말하지 실제 학생들은 “30분에서 시간 이상까지 기다린 적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남과 분당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대두되는데, 시당·교포가 직행하는 917번 버스는 기차만 1000명에서 1200명으로 증차를 뿐 상황은 본보 687호에서 보도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500명 역시 버스 자체의 낙후성과 노선의 문제가 꼽힐 일이 제기되고 있다. “길질적으로 분단되어 타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는데 분단을 도는 시장이 너무 같다. 강남에서 타고 오는 학생들의 진찰질과 분당 학생들을 위한 분장을 대로 도는 버스노선이 있었으면 한다”는 배운준(공대·제어계측 30군)의 말이 현 노선의 문제를 잘 나타낸다.

김민석·김경신 기자

그들은 오늘도 산을 오른다

“저기 산이 있어 산을 오른다”고

어느 등반가는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산이 있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의 거친 가지들을 헤치고

43년동안 산을 오른 이들이 있습니다.

재벌언론, 제도언론에 맞선 정론작필의 43년,

인론자주의 그날까지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는

산을 오르겠습니다.

